

# 코스콤,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금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

## »» 프레스룸

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 금융위원회 주관 '금융의 날' 기념

코스콤(대표 홍우선)이 금융 분야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코스콤에 따르면 전날(25일) 열린 금융위원회 주관 '제 7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준형 코스콤 마이데이터중계센터 차장이 혁신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을, 현철민 클라우드사업부 팀장이 혁신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의 날(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금융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이준형 차장은 데이터산업에서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기술 전문성과 마이데이터등 금융 분야 내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앞서 지난 2016년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을 위해 구축된 '금융권 공동 오픈API 플랫폼' 기획·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과 API기술이 금융권에 보편

화 되는데 기여했다.

2020년부터는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살려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들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 ‘데이터표준화협의체’에서 활동했고, 이를 통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산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공헌한 것이 인정됐다.

아울러 현철민 팀장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조기 시장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 데 대한 공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준형 차장은 “금융 마이데이터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깃든 결과물로, 특히 정보 제공을 위해 밤낮으로 개발과 테스트에 애쓰신 모든 개발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이 표창은 코스콤이 데이터산업에서 기술과 신뢰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경험이 금융 분야 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도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